

2018-2021 국가형제회 우선순위: 형제회 생활

프란치스코 교황의 “형제회”에 대한 말씀

콘벤뚜알 작은 형제회 총회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 (6/17/2019)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작은 형제들의 회칙” (성 프란치스코, *인준받은 회칙* 1 장 1)과 여러분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고, 베네딕토 16 세 교황이 말씀하신 “주님 말씀의 살아있는 ‘주해’” (*사도적 권고*, 83)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안내서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주의 깊게 듣고, 복음으로 기도하고, “하느님의 성전이 되신 마리아” (성 프란치스코,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드리신 인사*)의 모범을 따라 부지런히 묵상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하도록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는 방식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주님이 몇몇 형제를 나에게 주셨다” (*유언* 14)며 선물이라고 생각하신 형제회의 특징입니다. 형제회는 감사히 받아들여야 하는 선물입니다. 형제회는 사실 항상 유동적이며 끊임없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배제하거나 배제당하지 않고, 모두의 참여가 요구되는 곳입니다. 형제회는 모두가 서로에게 기여하는 곳입니다. (*OFMConv* 회헌 55, 5 참조). 형제회는 그 안에서 지속적인 수습과 타인과의 개방 그리고 상호 교류의 길을 살아가는 실재이며; 준비되고 기꺼이 동반할 의향이 있는 환영하는 현실이며;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침묵과 명상적인 시선을 길러서 하느님의 흔적을 인식할 수 있는 실재이고; 형제회의 봉사자와 모든 회원들을 형제들로 생각하는 실재이며;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듯이 (성 프란치스코, *인준받지 않은 회칙*, 9 장, 11 참조) 모두가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불린 경험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현세의 다른 모든 것들이 이바지해야 할” (*인준받은 회칙*, 5 장 2) 거룩한 기도와 신심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형제애를 키우기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하여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회 생활은 교회와 세상에 예언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사제들과 사랑과 존경의 관계 안에 있는 친교의 학교가 됩니다.

- 1) 프란치스코 교황은 1 회 수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형제회에 대한 그의 생각은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교황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형제회를 선물로 생각했다고 보셨습니다. 당신에게는 형제회가 어떤 선물입니까?
- 2) 교황은 형제회의 현실을 특징짓는 몇 가지 속성들을 열거하십니다. 이 중 어떤 것이 당신의 형제회에 적용됩니까? 형제들을 품을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 3) 프란치스코 교황은 형제회 생활의 결과가 공동체라는 것이 “교회와 세상과 영적 공동체 안의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OFS 회칙의 어느 조항이 우리에게 예언적 입장을 요구합니까? 어느 조항이 친교의 생활을 요구합니까?
- 4) 당신의 형제회는 본당과 공동체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